

⑦ 연합뉴스 │ < ▷ 대통령적인수위 정치 북한 경제 산업 사회 전국 세계 문화 라이프 연예 스포츠 오피니언 사람들 비주얼; >

Q

മ

뉴스홈 | 최신기사

푸틴-마크롱, 일주일 새 세번째 통화..."우크라 주변 정세 논의"

송고시간 | 2022-02-04 17:23











유철종 기자



푸틴 대통령(왼쪽)과 마크롱 대통령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3일 저녁(모스크바 시간) 프랑스 측의 요청으 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전화 통회를 했다고 크렘린궁이 밝혔다.

두 정상의 통화는 푸틴 대통령이 이날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 참석을 위해 베이징으로 출발하기 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크렘린궁은 "두 정상이 통화에서 우크라이나 주변 정세와 러시아에 대한 장기적인 법적 안전보장안 마련과 관련된 문 제 등에 대해 구체적 대화를 이어갔다"고 전했다.



크렘린궁에 따르면 정상들은 또 최근 일련의 국제 파트너들과의 접촉 등을 바탕으로 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교환했다.

푸틴 대통령은 특히 우크라이나 정부가 '민스크 합의'에 위배되 는 도발적 발언과 행동을 하는 데 대해 마크롱 대통령의 주의를 환기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프랑스·독일 등 4개국 정상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 분쟁을 종식하기 위해 2015년 2월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에서 '민스크 평화 협정'에 서명했으나 이 협정은 제 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푸틴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의 이날 통화는 지난달 28일과 31 일에 이어 최근 일주일 새 이루어진 세 번째 접촉이다.

양국 정상의 잇따른 통화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준비설로 러시아와 서방 간 대립과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이루어 졌다.

서방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 약 13만명의 병력을 집결시키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주





핫뉴스 →

日 공주와 결혼한 대학 동기, 뉴욕 변호사 시 험 또 불합격

박진, 광우병 사태 때 美당국자에 "한국에 너 무 많은 민주주의"

여성 전용 교도소라는데...美서 동료 재소자 끼리 성관계 후 임신

"마지막 순간 마음 바꿨다" 2015년 파리 테러 범이 밝힌 '그날...

韓 육사 생도 영 왕립사관학교 첫 졸업...여왕 "양국...

프로야구 LG-SSG전 오심 내린 심판, 2군 강등...

기원전 2~3세기 마야 달력 파편 발견..."가장 오래...

한국 유튜버, 촬영 중 실수로 우크라 국경 넘었다 ...



장하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군사공격할 계획이 없다고 항변하면서 오히려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등이 러시아에 이웃한 우크라이나를 군사적으로 지원하면서 러시아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등 옛 소련권 국가들의 추가 나토 가입 금지, 러시아 인근으로의 나토 공격무기 배치 금 지 등을 규정한 안전보장 협정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cjyou@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2/04 17:23 송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프랑스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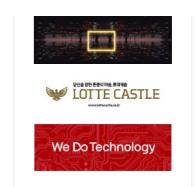
현장 영상 →

▶ 01:18 ▶ 02:22

[영상] 입·발 묶인채 두 눈만 멀뚱멀뚱...누가 학대했니 영상] 곡사포 수송헬기·장갑차...美, 꺼렸던 무기들 영상] 미국 최고위급 키이우 방 결국 우크라에

링컨 등 후보군"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영상



에디터스 픽 Editor's Picks

● 영상

▶ 01:59

[영상] 윤석열, 안철수 '패싱' 질문에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

● 뉴스

오늘 거리두기 해제 발표, 2년 1개월만 종료...마스

尹당선인·安위원장 만찬 회동..."공동정부 한치의 흔들림 없

尹 당선인 "韓, 위상 맞게 외교정책 강 화...美와더 강력한 동맹"

'검증의 시간' 시작됐다...한동훈, 청문회 준비 돌입

"'의학에 뜻' 정호영 아들, 학부 4년간 관 련과목 2개 수강"

댓글 많은 뉴스

김건희 여사 팬카페, '악성 댓글' 누리꾼들 경 ☑ 143 찰에 고발

2 '유퀴즈' 尹당선인 출연 논란..."프로그램 취지와 ⊕ 65 안 맞아"(종합)

3 정호영 자녀, 경북의대 편입전 아버지 있던 경북 ☐ 61 대병원 자원봉사

4 두문불출 이재명, 이발·염색...조기등판론 속 활

5 문대통령, 손석희와 대담...靑 "임기 5년 소회 밝 ⊕ 40 힐 예정"

뭐하고 놀까? ## 😛 →



















뉴스홈 최신기사 정치 북한 경제 산업 사회 전국 세계 문화 라이프 연예 스포츠 오피니언 사람들

비주얼뉴스 영상 포토 화보 #D 그래픽 **뉴스 상품** 프리미엄뉴스 뉴스리 인터넷맞춤형 보도자료 해외배포 보도자료 국사베포

테미별뉴스 첫뉴스 톱뉴스 주요뉴스 긴급뉴스 단독뉴스 많이본뉴스 **출판물** 이매진 연합연감 영문연감 한국인물시전 단행본 월간마이더스

뉴스+ 이슈돋보기 팩트체크 재난포털 날씨 주요신문톱뉴스사설 이시각헤드라인 **광고** KTX열차 AREX 공항철도 모바일 PC/홈페이지 출판물

 모바일 뉴스
 모바일 앱
 보다시진
 이미지
 그래픽
 동영상
 인물

외국어 English 中文 日本語 حربي Español Français **관련사이트** 연합뉴스TV 인모맥스 한민족센터 K컬쳐기확단(K-ODYSSEY) 채용 IR클럽 #홍

계약사/제휴문의

회사소개 윤리헌장 저작권규약 수용자권익위원회 모바일모니터링위원회 콘텐츠자문위원회 고충처리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독자게시판 기사제보(02-398-3000) 사이트맵

연합뉴스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2길 25 | 등록번호 문화,나00009 | 등록일자 1990.1229 | 발행일자 1990.1229 | Tel. 02-398-3114

(C) [대표이사] 성기홍 [편집인] 조채희

Yonhapnev